

“광주교육 협치의 길을 찾다”

제1회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분과위원회 구성 및 교육의제 발굴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광주교육 협치의 길을 찾기 위한 워크숍을 22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위원들이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워크숍 주제 및 내용을 기획하고, 역할을 나눠 진행하는 등 광주교육에 대한 열정과 참여로 교육자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다.

워크숍은 오프닝 마음열기, 제1부 참여단 역할 및 실천원칙 정하기, 제2부 광주교육 의제발굴, 제3부 기타 협의 등으로 운영하였으며, 14시부터 22시까지 알찬 논의를 이어 나갔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속의과정을 거쳐 교육협치분과, 지역협력분과, 학교자치분과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긴급한 현안논의를 위해서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해 교육협치를 이루어 나갈 교육의제로 고등학교 기숙사 폐지 문제, 스쿨미투 해결방안,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구성 등 총 23개의 교육의제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이계양 단장은



“시민참여단 논의 과정 중에 다양한 갈등도 있고 여러 한계도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교육협치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자 원칙이고 민주주의의

광주시교육청, 학부모 간담회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27일부터 2개월간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학교급별로 22관역으로 구분하여 학부모와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를 어려워하고 타 학교 학부모들과 소통 및 활동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부모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광주시교육

청 시민참여담당관 신설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소통·공감하며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학부모 정책에 반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담당관(안석)은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와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문화조성을 위해 학부모 지원을 내실화하고 있다”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공동체 구현 및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곡성교육문화회관, 내달 독서의 달 프로그램 진행

곡성교육문화회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의 독서욕 고취 및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독(讀)독(讀)독(讀) 책이 노크라네오’를 주제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독서의 달 주요 행사로는 인형극, 리딩푸드놀이, 다독자 시상식 등이 개최된다.

인형극은 ‘호’를 주제로 곡성지역 문화예술 단체인 ‘섬진강 도깨비마을’에서 제작한 효자가 된 효리를 공연한다.

기관 및 학교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았으며 총 200여명의 학생이 신청하여 성황리에 모집이 마감되었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책이랑 요리랑 리딩푸드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음식이 나오는 그림책을 생생함과 같이 읽고 피자, 젤리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여 나만의 컵케이크를 만드는 활동이다.

책과 요리를 접목시켜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 주고 재료를 조합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이 외에도 대출권수 10권으로 확대 운영 표지 그림 보고 퀴즈 맞추기, 다독자 시상식 등이 운영된다. 이 기간 자료실에서 대출하는 회원 및 신규 가입자에게는 달콤한 사탕도 증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http://gslib.jne.go.kr/>)와 문헌정보실(061-363-0672)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교육지원청, 신규 일반직공무원 24명 직무연수 실시

완도교육지원청은 22일부터 23일까지 청 내 컴퓨터실에서 신규 일반직공무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완도교육지원청은 매년 관내 각급학교 행정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에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갖고 있으며, 이번 연수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임용된 일반직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전라남도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학교혁신 현장공모 교육훈련’ 과정에 선정돼 연수원의 지원과 점검을 받음으로써 교육

내용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연수 과정에는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 이론과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선배와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듣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석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명식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활근거지에서 가장 먼 완도에 울며 달려 왔지만 완도의 따뜻한 정

문제이므로 방향과 원칙을 분명히 하여 다양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순천대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순천대학교는 지난 23일 70주년 기념관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박사 19명, 석사 118명, 학부생 285명 등 42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고영진 총장과 보직교수, 안세환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초청 인사와 학위 취득자 및 가족,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영진 총장은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그동안 흘린 땀과 인내의 시간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었



“다”며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항상 멈추지 말고 성장할 것과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항상 덕을 배풀고 배려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자세를 보여주시라”고 당부했다.



‘2019 지역사회 발돋움 교실’ 운영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22-23일까지 1박 2일간 일정으로 고흥군 관내 취약계층 초·중·고 청소년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지역사회 발돋움 교실’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고흥군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으로 2017년부터 매년 운영해 오고 있다.

지역 관내 다문화등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통해 스스로 꿈을 키우며 자존감 향상의 계기가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은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수상 체력형 해양프로그램과 자신의 끼를 발휘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한마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둘째 날은 초·중·고 학생들이 함께 팀을 구성하여 소속감과 우애를 느낄 수 있는 뉴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고흥지역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발돋움 교실 프로그램은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으로 지역주민과 고흥군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발표주민 공동체 날’, ‘고흥 도화중·고 진로캠프’,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업무협약’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도 꾸준히 개발해 운영 중이다.

해양수련원 장기식 원장과 고흥군 관계자는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고흥지역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수련활동이 꿈과 비전을 키우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한마음 레크리에이션

전남도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워크숍’ 개최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월 위기 학생에 대한 촘촘하고 종합적인 학교안정망 구축을 위한 ‘학교상담 활성화 추진 계획’을 세운 이후 적극적 상담활동을 통해 학교 적응력 향상과 위기 학생 감소를 위한 전문상담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23일 보성청소년수련원에서 전문상담교사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상담교사 워크

숍’을 개최했다.

전문상담교사는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 배치돼 학생상담 활동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위기사안 발생 시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적극적 상담활동을 하는 등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자살(자해), 학교부적응, 성문제 등 상담내용과 위기수준이 다양해지고, 상담수요가 증가하면서 유형별 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연수는 이런 요구에 부응해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됐다.

연수는 학교현장의 상담사례 중 다수사례로 주목되고 있는 ‘교우관계 갈등’에 대한 다각적 해결방안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밝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 박순영 원장이 ‘말씀신전(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친구고민 해결법)’ 교우관계 개선 상담 기법을 교육했고, 열린의사회 김종섭 강사는 전문상담교사들의 상담활동에 따른 소진을 회복하기 위한 음악 감상프로그램을 강의했다. 이와 함께 학생상담 사례 공유 및 2학기 학교상담 지원 방안 협의도 이뤄졌다.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김성애 과장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 교육적 활동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에 대한 상담·치유 지원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